

회/원/사/탐/방

GOLDTEL

- 대표이사 : 이재수
- 설립연도 : 2000년 2월
- 본 사 : 광주시 북구 월출동 970-44
- 주생산품 : 광점퍼코드용 스트리퍼, 열수축슬리브 히터, 다심용 열수축슬리브, 단심용 열수축슬리브, 교육용광통신측정시스템, 다기능광단자함, 광커넥터플라이어
- 전화번호 : 062)607-0100 ○ 팩 스 : 062)607-0114

(주)골드텔

<http://www.n-goldtel.co.kr>

FTTH용 제품 출시 시장개척 나서

다기능광단자함(MOTP) 등 FTTH용 제품 출시

광통신 장비 및 시스템 전문업체 골드텔(대표 이재수 <http://www.n-goldtel.co.kr>)은 다기능광단자함(MOTP) 등 4종의 대내광가입자망(FTTH)용 제품을 출시하고 다가오는 FTTH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 회사는 미국·일본에 이어 올해부터 광주 FTTH 시범사업이 본격화돼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보고 FTTH용 제품 개발 및 양산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광단자함과 광접속함을 결합한 MOTP는 광케이블 입·출구를 늘려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빌딩과 기지국, 아파트, 학교 등의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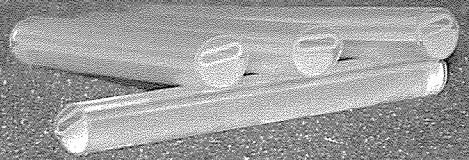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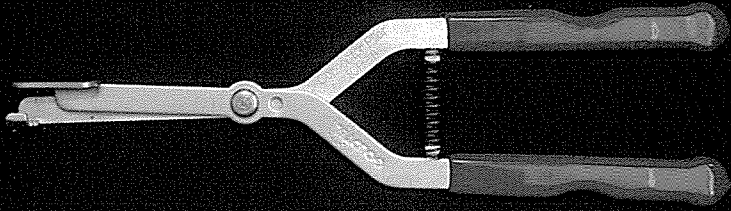
광단자함은 건물의 내, 외벽, 전주에 설치되어 가입자의 변경과 등록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전송모듈과 외부 광선로의 연결 및 절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 다기능광단자함은 향후 기지국, PC방 및 일반주택 등 다가입자 위주로 고안되어 다양한 호환성과 고품질로 제작되었다. 향후 WDM/COUPLER 등 수용성이 쉽고 탁월하며 완벽한 케이

블 고정성과 방수성으로 전주, 벽면 밀착 등으로 다양한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유지보수 및 고장 발생시 광단자함을 분리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기존 방법에서 벗어나 전주 및 벽면에 고정부착된 상태에서 신속한 고장 수리 복구할 수 있어 탁월한 유지보수성과 높은 효율성을 가진 제품이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가입자에 대비 광케이블 입출구 수를 늘림으로 많은 가입자 수용이 가능하여 원거리로부터의 케이블 포설을 지양하여 광케이블 재포설(가설) 비용 절감 기대효과가 큰만큼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수요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FTTH시범사업 본격화되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

또한 광가입자망용 양방향 실시간 선로 감시 장치는 광 네트워크에서 가입자들과 광선로망 유지, 보수 기술자들이 선로상의 데이터의 전송 상태를, 데이터 전송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LED의 ON/OFF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데이터 전송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저가형 광선로 감시 장치이다.

이 제품은 FTTH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이 회사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FTTH나 구내 광랜의 케이블 끝단에 설치하는 현장조립형 커넥터를 현장에서 예폭시로 고정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공구없이 빠른 시간에 커넥터 작업이 능한 현장조립형 커넥터를 자체 개발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기대

또한 국내에 유일하게 열수축형 광보호슬리브 즉, 일반형 슬리브(60, 45, 30mm)로 슬리브와 리본형(다심)슬리브까지 모든 제품을 생산중에 있다. 세계최초로 Metal rod가 없는 열수축형 슬리브를 개발하여, 힘에서 자유로우므로 보다 더 유연성 있는 특성을 발휘한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미국 두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골드텔은 MOTP와 선로감시장치, 종단함 등은 KT와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 국내 기간망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 올해 4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며 현장조립형 커넥터는 미국 등에 수출을 추진중이다.

이재수 사장은 "FTTH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 선로 작업의 대체 및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FTTH용 제품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된데다 사업자들로부터 평가가 좋아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 편집실 윤희진

